

T셔츠는 메리야스 내의가 외의로 승격한 것

여름철에 착용감이 좋은 것은 T셔츠이다. 그것은 대단히 간편하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무늬 물이 다양하고 세계적이라고 하여도 좋을 만큼 여러 곳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팔리고 있다. T셔츠는 메리야스 내의가 외의로 승격한 것이다. 그와 반대로 폴로셔츠는 귀족의 유희인 폴로경기의 스포츠웨어에서 나왔다. 양자는 모두 캐주얼웨어에 속하면서도 폴로 셔츠가 다소 점잖은 감인 것은 그의 출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T셔츠인 천축은 평편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천축은 평편하고 광택이 있다. 위사 방향으로 늘리면 잘 늘어지고 경사방향으로 줄어든다. 경사방향으로 늘리면 위사 폭이 오므라들어 좁아지게 된다. 녹자는 천축에 변화 편성조직의 일종인 턱을 조합하여 편성 올에 오목하게도 하고 볼록하게도 하여 천의 표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편의 일종인 트리코트는 경사방향으로 늘어지지 않고 위사방향으로만 늘어난다.

면 천축의 장점으로서는 드레이프를 나타내기 쉽고, 신체의 곡선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늘어지기 쉽고 원래대로 잘 되돌아가기 때문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으며, 굽히기 쉽고 부드러우며, 통기성, 흡습성이 높고, 숭고성이 있기 때문에 보온성이 있으며 경쾌한 느낌이다. 약점으로는 자증이나 수분에 의하여 처지고, 형이 무너지기 쉬우며, 고시가 없고, 실이 빠져나오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실이 풀린다. 방풍성이 낮고 사행(올이 굽는)하기 쉬우며 줄어들기 쉽다.

1) 셔츠(shirt) : 상반신에 입는 서양풍의 옷으로써 영어의 어원은 중세 노르망디의 스킨트(skirt : 셔츠인 동시에 스커트도 의미했다)에서 파생한 것이라고 한다. 셔츠는 남녀가 함께 입은 옷으로, 속옷과 속옷 위에 입는 와이셔츠 또는 셔츠 블라우스 등이 있다. 남자용으로는 속셔츠(언더셔츠 또는 러닝

셔츠)와 와이셔츠 또는 셔츠 블라우스 등이 있다. 남자용으로는 속셔츠(언더 셔츠 또는 러닝 셔츠)와 와이셔츠 등 여러 종류가 있고 여자용으로는 셔츠 블라우스와 속셔츠인 슈미즈 등이 있다.

셔츠의 기원은 고대 오리엔트에서부터이고 아시리아 지방의 몸에 짝 끼는 모직셔츠가 그 전형이었다. 그리스·로마 등 고대의 속옷은 대체로 속옷과 겹옷을 겸한 1장의 튜닉(tunic)이었는데, 중세에 와서 이중으로 입는 방법이 생기면서 독립된 마제의 넉넉한 셔츠가 등장했다. 이 때의 셔츠는 커틀(kirtle), 또는 체인즈(chainse)라 했으며, 그 후 셔츠는 의복의 외형에 따라 변화하였고, 재료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보였다.

르네상스 시대 마제의 셔츠는 슬래시(slash)라는 절개선의 장식이나 네크라 인 등에서 노출되어 그 자체가 중요한 트리밍이 되었다. 하류층에서는 곧 셔츠 자체가 겹옷의 구실을 하게 되어 스목이나 블라우스와 병용하는 경향까지 보였다. 오늘날과 같은 면 모직의 유연한 셔츠가 보편화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이고, 다시 위생적인 고려가 가미된 것은 20세기 초 이후부터 이다.

셔츠는 형태와 재료·용도 등에 따라서 각종 명칭이 붙는다.

① 와이셔츠 : 흰 셔츠란 뜻이며, 영어의 화이트(white shirt)의 와음인 와이셔츠로 통용된다. 디자인은 앞트기이고, 셔츠 소매로 된 긴소매와 스탠드본이 있는 셔츠칼라, 싱글 또는 더블의 커프스가 달린다. 이 중에서 칼라와 커프스의 형은 유행과 취향에 따라서 다소 변화한다.

칼라는 칼라의 표준형인 레귤러 칼라(regular collar)로부터 칼라 끝이 짧거나 길게도 되고 끝을 둥글리기도 하며, 칼라 버튼으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도 만든다. 커프스에도 더블이나 싱글의 부착된 것에서부터 커프스 버튼으로 맞췄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것까지 있다.

일반적으로 신사복 상의 밑에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칼라와 소맷부리는 겹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소 길게 착용한다. 보통 1cm 정도가 정식

이며 너무 많이 나온 것은 흥하다.

와이셔츠는 이름과 같이 원칙적으로 백색이지만 옅은 색과 가는 줄무늬도 있고, 최근에는 넥타이를 매지 않고도 착용한다. 이른바 스포츠셔츠나 오픈 셔츠까지도 포함해서 와이셔츠라 하는 경우도 있다.

옷감은 면 브로드가 대부분이고, 직사의 굵기에 따라서 60, 80, 100, 120s로 부르며, 견과 같은 촉감의 200's도 사용된다. 그 밖에 마, 견, 모, 화학섬유의 혼방직 등이 사용된다. 최근에는 수지가공한 것으로 워시 앤드 웨어의 셔츠가 애용되는 한편, 남자의 와이셔츠형을 여자용 셔츠에 이용한 셔츠 웨이스트 블라우스가 노소를 막론하고 많이 이용된다. 프랑스어의 슈미즈에 해당한다.

② 폴로셔츠(polo shirt) : 칼라가 달린 반소매의 셔츠로, 보통 앞트기이고 단추가 2~3개이며 머리가 뒤집어써서 입는 형으로 되어 있으나 노 컬러에 라운드 네크라인의 것도 있다. 원래는 폴로 경기 때 착용한 것으로 백색 또는 황색의 것이 많았고, 현재는 스포츠용으로 또는 휴식 셔츠로 사용되며, 긴소매도 있다. 마, 모, 화학섬유직으로 만들고 스웨터와 같은 니트직의 것도 있다.

③ 커터셔츠(cutter shirt) : 칼라와 커프스가 달린 셔츠로 스탠드칼라 셔츠라고도 한다. 전에는 스포츠용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보통 와이셔츠처럼 넥타이를 매고 상의 속에 착용한다. 군함(cutter)에 종사하는 사람의 셔츠와 닮은 데서 이름이 붙었다.

④ 오픈셔츠(open shirt) : 오픈칼라가 달린 셔츠로, 스포츠용 또는 여름용 셔츠로 사용된다. 오픈칼라 셔츠의 약칭이다.

⑤ 티셔츠(T-shirt) : 노 칼라에 트기가 없고 어깨선이 일직선으로 된 모양의 셔츠이다. 양팔을 수평으로 펴면 길과 소매의 형이 T자와 같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타월 · 메리야스 천으로 만든 것이 많으며 가정복 · 리조트웨어 등으로 사용된다.

⑥ 아이비셔츠(ivy shirt) : 주로 젊은 남자에게 애용되는 와이셔츠형의 셔츠로, 깃은 끝이 보죽하고 룡 포인트형이며 깃 끝을 단추로 잠그고 뒷깃 중앙도 단추를 채우며, 뒤 중앙에 백스 플리트가 1개 있다. 옷감은 면브로드의 줄무늬, 체크무늬와 옥스퍼드 등의 색무늬천이 쓰인다. 아이비는 미국 동부의 8개 대학 축구의 아이비 리그전에서 온 말이며 이들 학생들이 즐겨 착용한 데서 유래한다.

⑦ 알로하셔츠(aloha shirt) : 화려한 색채를 쓰고 대담한 염직 무늬의 감으로 만든 것으로, 편안한 느낌의 남자용 셔츠인데, 주로 피서지에서 착용한다.

“알로하”란 애정과 안녕을 나타내는 하와이 말이며 처음에 그곳에서 입게 된 데서 붙은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셔츠는 도련을 바지 속으로 넣어 착용하나 이 셔츠는 바지 위로 내놓고 입는다. 알로하 셔츠(aloha shirt)는 하와이에서 유행한 남자용 셔츠인데 미국에서는 패션 셔츠라고도 한다. 화려한 프린트 무늬가 있는 면직물로 기장을 짧게 만들어서 바지 위로 옷자락을 내놓고 입게 되어 있어 시원하다. 1936년 호놀룰루의 “장”이라는 중국 사람이 알로하 셔츠라는 이름을 등록한 이후로, 하와이의 사람들과 하와이를 찾는 관광객에 의해 애용되면서부터 피서지나 여름의 평상복으로 널리 착용하게 되었다. 하와이에서는 비공식적인 카테일 파티에 입어도 무방하다.

⑧ 러프라이더 셔츠(roughrider shirt) : 러프라이더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 때 조작된 의용 기병대의 뜻이며, 이 때 착용한 카키색의 셔츠를 말한다.

스탠드 칼라에 가슴 양쪽에 뚜껑 달린 주머니가 있고 어깨에는 견장이 있으며 앞트기로 끝까지 단추가 채워진다.

⑨ 러닝셔츠(running shirt) : 육상 경기용으로 남자들이 사용한, 소매가 없고 목이 깊이 팬 스포츠 셔츠인데, 요즈음은 남자의 속옷으로 사용된다.

셔츠웨이스트(shirt-waist) : 모양과 재단에서 남자용 와이셔츠의 감각을 지닌 스타일이다. 칼라는 스탠드본이 있는 셔츠 칼라이고 싱글 또는 더블 커프스가 달리며 소매상이 낮은 셔츠 소매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이다. 원피스로 된 것은 셔츠웨이스트 드레스, 블라우스로 된 것은 셔츠웨이스트 블라우스라고 한다. 또한 이것들을 다시 줄여서 셔츠 드레스, 셔츠 블라우스라고도 한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도 유행 없이 평상복 또는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다. 1954년 C. 디오르가 줄무늬 모직물로 셔츠웨이스트 드레스를 만드려 남성적인 실루엣의미를 표현한 데서 유행한 것이다. 재료는 면, 마, 견, 모직 또는 화학섬유직물 등의 무문, 줄무늬, 체크무늬 등이 많이 사용된다.